

파견 국가	네덜란드	TU Delft 교환학생 후기	소 속	전기정보공학부
파견 대학	TU Delft		성 명	최진영

## I. 교환 파견 동기

대학교에 와서 갈망하던 것 중 하나가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 미국에서 2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는데 잊지 못할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외국에서의 유학생 생활이 항상 궁금했고, 더 나아가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저에게 외국살이가 저에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외의 우수한 교육환경 속에서 시야를 넓히고 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미국 유학생 생활을 해본 저에게 미국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에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 중 처음 갔던 유럽 여행이 굉장히 인상 깊어, 유럽에 교환학생을 가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중 네덜란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네덜란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유럽 나라들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영어로 소통이 안 된 경우는 6개월 통틀어 오직 2회였습니다. (다른 비영어권 유럽 나라들을 여행했을 때 하루에 영어로 제대로 소통이 되는 현지인 두 명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중부 유럽에 위치해 있어 유럽 여행을 다니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견되었던 델프트 공대는 유럽을 대표하는 공과대학이며 QS 대학랭킹에서 2022년 기준 공학/기술 분야 10위에 등재된 우수한 학교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대로 교환학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델프트 공과대학(Technische Universiteit Delft)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최고의 공과대학입니다. 네덜란드 뿐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공과대학으로써 토목, 건축, 기계, 항공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2024 QS 세계 대학 랭킹 공학/기술 분야 13위에 등재되었으며, 특히 2024년 기준 토목과 기계공학이 2위, 3위로 세계를 대표하는 공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라는 이름은 “낮은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1/3의 땅이 해수면 아래에 존재하고, 어디에 가든 광활한 들판과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낮고 평평한 나라입니다. 독과, 운하, 그리고 해안의 모래언덕 덕분에 이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덕분에 네덜란드는 공학, 특히 건축과 도시공학이 아주 잘 발달한 나라입니다. 평지가 많아서인지 네덜란드 사람들은 발이 자전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전거가 일상인 나라입니다. 인구수보다 자전거가 많습니다. 또한 평지여서 북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줄 산이 없어서 바람이 많이 불고, 어딜 가든 풍차를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비바람이 거세어 한국보다 기온은 높아도 습도 때문에 춥지만, 여름에는 30도가 넘는 날들이 드물고 화창한 날들이 계속됩니다.

TU Delft 가 위치해있는 델프트는 헤이그와 로테르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헤이그는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 순국으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의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이며, 로테르담은 유럽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유럽 최대 규모 항구도시입니다. 거대한 두 도시 사이에 끼어있는 이유에서인지 델프트는 더더욱 작고 평화로운 도시로 느껴집니다. 인구는 10만명이 겨우 넘으며, 인구의 대부분은 대학생이거나, 델프트 공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대학도시입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니 네덜란드는 굉장히 안정되고,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델프트는 대학 도시라 그런지 그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도시였습니다. 델프트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조용하거나 할게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적하고 아기자기한 운하들로 둘러싸인 올드타운과, 소, 양, 오리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들판과 목장 등이 공존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하여 헤이그, 로테르담까지는 15분, 암스테르담까지는 45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 III. 학업

TU Delft는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과목당 수강 정원은 없으며, etl의 역할을 하는 brightspace라는 플랫폼에서 강좌 등록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생소했던 시스템은, 과목 수강 신청을 했더라도 시험 신청을 따로 진행하지 않으면 학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수강 하는 인원도 많고, 출석도 신경 쓰지 않으며 강의 자료는 전부 온라인에 올려주기 때문에 수업 보다는 시험에 비중을 많이 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점수 체계는 A~F 가 아닌 10~1의 절대평가 체계이며, 5.9점 이상인 경우 pass 입니다.

TU Delft의 경우 한 학기가 2개의 quarter 로 나뉘져 있습니다. 그래서 쿼터별로 수강신청을 새로 하게 되고, 한국에 비해 한 학기가 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쿼터는 대략 10~11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주는 5주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배우는 양에 비해서 강의 기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머지 5주는 프로젝트나, 시험 준비 기간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주로 중간고사가 없고 기말고사만 치릅니다.

교환 생활을 하며 다른 교환학생들을 만나보니 대부분의 경우 석사 교환학생이었습니다. TU Delft 에 지원할 때 "4학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석사 수업은 전부 영어강의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저도 석사 강의를 찾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High Speed Scientific Computing: 복잡한 과학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배웁니다. Parallelism, vectorization, 더 나아가 cuda computing 까지 알은 수준으로 다루게 됩니다. Pass or fail 과목이고, 내용도 깊지 않기 때문에 시험공부도 편한 마음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Advanced Digital Image Processing: 이미지 프로세싱과 관련된 전통적인 기법들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2인1조 프로젝트가 있으며 수업시간에 배웠던 이미지 프로세싱과 관련하여 논문 2개를 읽고 구현을 한 뒤, 논문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진행합니다.

Deep Learning: 딥러닝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매주 강제성이 없는 랩이 있으며,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코딩을 하게 됩니다. 또한 6인1조로 논문 하나를 선정

하여 매주 다른 조가 논문 리뷰 발표를 진행하는 세미나 세션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 매주 배경 논문을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쿼터 후반부에는 재미있는 딥러닝 주제에 대해 3인1조로 구현을 하고, 논문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강의 막바지에는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과,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기말 시험을 보게 됩니다.

Evolutionary Algorithms: 진화 알고리즘과, 이에 대한 응용을 배우게 됩니다. 배운 내용에 대해서 매주 관련 코딩문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1조 프로젝트로 진화 알고리즘을 응용해보고, 논문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기말 시험은 조금 어렵습니다.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처리의 기본부터 응용까지,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5주간 매주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 리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목은 시험이 없고 프로젝트 100% 수업입니다. 3인1조로 주어진 NLP 주제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고, 논문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교수님과의 면담이 진행되는데, 교수님께서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려 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TU Delft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수업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의 수업 분위기는 주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교수님께서 학생간의 교류를 원하신다고 해도,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TU Delft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 집니다. 강의 도중 열띤 토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익숙하고, 어떤 질문이든 간에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막혔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서로 눈치를 주지 않고, 소통을 하면서 함께 배워나가려는 자세가 보기 좋았고 굉장히 효율적인 정보의 확산방식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도, 영어 실력과 무관하게 의견을 듣고, 전달하는 것에 진심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논문이랑 친숙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석사 수업을 많이 들어서 일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논문 여러 개를 읽고, 관련하여 과제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등 논문이 수업 내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 V. 생활

### 의(衣):

네덜란드의 겨울은 영국의 날씨와 비슷하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풍차의 나라답게 바람이 엄청나게 불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비와 눈이 가로로 올 정도의 악천후가 몇 주간 계속됩니다. 따뜻한 옷도 좋지만, 패딩, 잠바 등의 바람을 잘 막을 수 있는 옷들을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바람이 추워서 코트를 자주 입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러한 날씨 속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우산을 쓰지 않고 걸어 다닙니다. 우산을 써도 바람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우비를 챙겨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여름은 굉장히 화창하고 쾌적하고 선선하며, 주로 18~24도 정도의 기온을 유지합니다. 반팔 위에 입을 얇은 외투 한두 벌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유럽 나라들을 여행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네덜란드보다 덥거나 쨍쨍하기 때문에 여행을 위해서 한국에서 입는 여름옷과 비슷하게 준비해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식(喰):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네덜란드, 혹은 북유럽 나라들은 음식이 잘 발달된 문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의 종류도 굉장히 적으며, 간을 맞출 때도 소금과 후추가 전부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감자를 많이 먹어서 키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말이 있는데 네덜란드 요리는 찐 감자, 삶은 감자, 튀긴 감자, 으갠 감자 같은 감자요리와 빵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식도 부실하며, 유럽 전반적으로 비건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어 비건 고기가 아닌 진짜 고기를 요리에 사용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외식 물가는 레스토랑의 경우 인당 평균 12~16유로로 비싼 편입니다. 외식을 할 경우 제가 즐겨 먹었던 가성비 좋고 맛있는 음식은 케밥, 인도네시아 음식, 중동음식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kibbeling, haring, stroofwafel 은 꼭 맛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맛있는 네덜란드 음식입니다.

식료품 물가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특히 치즈, 우유, 계란 등의 유제품의 경우는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외식이 비싸고, 식료품 물가가 싸서 자연스럽게 요리를 많이 해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amazing orinetal 이라는 아시안 마트, 혹은 작은 동네 아시안 마트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한국음식이 생각날 때마다 재료를 사서 한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주(住):

저는 DUWO라는 기숙사 업체를 통해서 기숙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 대상교에 합격하게 되면,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1000만원 가량의 돈을 네덜란드 이민청으로 송금해야 합니다.(이 돈은 현지 계좌를 만든 직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보내는 순서대로 기숙사를 고를 권한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국제송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숙사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1. 10명 각 방, 화장실이 있고, 2개의 주방을 공유하는 corridor 형식: 다양한 국제 학생들과의 교류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만큼 다양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혼자 사는 원룸형식: 다른 사람들과의 트러블을 피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됩니다. 다만 타지에서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심심할 수 있습니다.
3. 3명에서 가정집 하나를 공유해서 쓰는 방식: 제가 구했던 기숙사의 형태입니다. 일반 가정집도 같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집 하나를, 두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각방이 있으며 화장실, 부엌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숙사 형태의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생활 기타:

- 자전거: 네덜란드에서 자전거 없이 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구석구석까지 분포되어있지 않고,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먼 거리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전거를 구할 때 중고자전거를 사는 방법과 자전거 구독서비스(Swapfiets)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중고자전거는 구매는 조금 더 저렴한 옵션일 수는 있습니다만, 구하는 과정과 떠나기 전 다시 판매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저는 자전거 구독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자전거 구독서비스는 기어가 없는 경우 월 19유로, 기어가 있는 경우 월 23유로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싼 가격은 아니지만, 중고품을 구하는 노력을 안 들여도 되고, 수리비용은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6개월간 구독을 하여 사용했습니다.

- 병원, 의료: 네덜란드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한 번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아픈 경우는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없고, 해당 지역의 개인 의사(General Practitioner)분께 예약을 하고 확인서를 받은 후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예약을 해도 기본 몇 주 뒤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아주 느리고 불편한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프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진료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주로 파견교에서 의무적으로 국제 학생들에게 보험을 들도록 하는데,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자연 치유방식을 고수하는 나라라서 병원에 가도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습니다. 약국도 부실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의약품을 잘 준비해서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장보기: Albert Heijn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마트 브랜드입니다.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가 가장 다양하고, 품질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Jumbo는 네덜란드에서 2번째로 큰 마트 체인입니다. 제가 애용했던 마트는 Lidl으로, 값이 마트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품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 문화생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네덜란드만의 문화생활은 크게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세계 3대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로얄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 저로써는 그들의 역사적인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는 것이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교환 기간 중 공연을 4번 관람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팁을 조금 드리자면, 만 24세 이하인 경우 공연 4시간 전에 구매할 수 있는 last minute ticket으로 모든 좌석 16유로라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전과 인터미션때 공연장 내 바의 모든 음료가 무료입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입니다. 네덜란드는 스포츠 강국이며, 특히 운하가 발달한 덕에 빙상스포츠와, 수중 스포츠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다양한 국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로테르담에서 열린 ATP500 테니스 경기, 네덜란드 축구 리그 경기, 네이션스 리그 등 많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였습니다. 굳이 네덜란드가 아니어도, 유럽 전역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 팀에 대해서 일정을 참고하여 여행과 곁들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 네덜란드만의 특별한 문화들: 가장 먼저 킹스데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총리가 실질적인 국가원수이지만, 국왕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킹스데이는 간단히 말해 국왕의 생일인데, 네덜란드의 가장 큰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더치 친구들한테 물어본 결과 국왕의 생일은 둘째고 그냥 술 많이 마시는 날이라고 합니다만, 네덜란드 전역에서 수많은 퍼레이드, 행사, 파티가 진행되니, 친구들과 함께 킹스데이를 즐겨보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사람들은 튜립과 꽃에 진심입니다. 가장 큰 튜립 행사인 쾨겐호프 튜립축제(keukenhof)도 좋지만, 쾨겐호프 옆의 튜립 필드를 자전거를 타고 구경하는 것을 더욱 추천합니다. 또한 바람이 많이 부는 만큼 풍차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풍차 안을 구경하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운데, 잔세스칸스(zaanse schans)나 킨더다이크(kinderdijk) 풍차마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치즈도 유명한데, 고다치즈

의 고향 고다(Gouda)에 매주 목요일에 치즈 시장에 가보는것도 흥미롭습니다. 고다 뿐 아니라 네덜란드 도시들 전반적으로 목요일 혹은 토요일에 각 도시 중앙 광장에서 마켓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네덜란드는 반 고흐, 하이네켄, 미피, 델프트 블루,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린 베르메르 등의 고향입니다.

##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졸업 전에 꼭 가고 싶었던 교환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졸업이 한 학기 남은 시점에서 뒤늦게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늦게 교환학생을 가면서 졸업과 진로 관련하여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교환학생을 뒤늦게 간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학년 때 교환학생을 다녀왔다면, 한 학기동안 배우는 것 없이 놀다가만 왔을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전공지식 그리고 인생에 대한 경험이 더 생긴 뒤에 교환학생을 다녀왔기 때문에 더욱 더 풍부한 경험을 하고 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온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함이 전제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다름에 굉장히 익숙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 중에 생전 겪어보지 못한 정말 다양한 상황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 보니 일이 항상 잘 풀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해냈기에 매사에 대해 저를 믿을 수 있게 됐고 어떤 상황이든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낯선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고 열린 사고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에 대한 조언을 몇 가지 드리자면, 교환학생을 가기 전 목적을 잘 생각해하시고,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은 적게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가서는 돈을 아끼느라 흔치 않은 소중한 경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조금해지고 내적 갈등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때는 교환학생 생활 중에만 할 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만의 성취나 여행보다는 경험과, 사람들에게 가치를 두고 여유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다른 분들의 수기를 읽었을 때 “나를 잘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저는 이해가 잘 안되었고 과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다양한 상황에 놓아 보면서, 저의 새로운 모습과 반응을 보며 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며 그렇기에 지금은 제가 저의 가장 친한 든직한 친구입니다. 제 교환학생 생활이 진로 뿐 아니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교환학생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환학생은 그 누구에게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교환학생 다녀오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즐겁고,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